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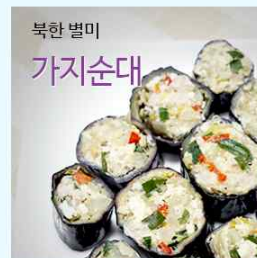
누아씨 (NUAC)가 간다
'2017 민주평통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지역 본선



당신이 통일주인공
'제 2의 달콤한 인생'을 꿈꾸다
양봉 전문가 김철진 씨 부부



통일돋보기
IT강국 대한민국,
그럼 북한은?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북정책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최첨단 주요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키고,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이에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5년과 인민군 창군 일 85년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지 않고,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신종 전략무기 과시와 대규모 화력연습 등으로 도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3월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 성공 이후, 미사일 시험발사를 10일 전후 간격으로 꾸준히 단행해 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3월 22일, 4월 5일, 4월 16일, 4월 29일 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속적으로 실패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5월 14일 액체 연료 화성-12호 중장거리 미사일(5,000km 이내)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5월 21일 고체연료 북극성 2형의 준중거리 지대지 미사일(2,000km)을 지난 2월에 이어 2차례 성공하자,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부대 실전배치를 지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정책에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배치된 괌과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미사일 능력 향상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특히, 1,000~1,300km의 사정거리인 스커드-ER과 노동미사일을 2016년 9월에 3발, 그리고 금년 3월에 4발을 동시에 동일한 지점에 낙하시킨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정책에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셈이다.



▲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지난 5월 3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은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북한은 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②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③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추진하지 않고 ④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체제수호와 내부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과거 미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까지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중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압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자 했고, 지금은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관여'가 무엇인지 시차를 두며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관여정책으로 발전해나갈 나날 동력이 한층 높아진다.

따라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3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고, 5월 18일 한국 신행정부의 미국특사와의 만남에서도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한국 신행정부도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관여정책으로 발전해나갈 동력이 한층 높아진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그들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속도전의 구실로 삼아왔는데,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시그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궁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조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북한에게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계산할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이 일정정도 고도화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적대시정책으로 강조하며 도발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 신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잘 간파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북한은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배치된 괌과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미사일 능력 향상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IT강국 대한민국, 그럼 북한은?

북한이 최신 IT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주민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조사업체 인터미디어에 따르면 인터넷 통제기술은 물론, 주민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는 북한 전용 네트워크가 개설되면서 휴대폰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는 북한 당국이 모든 휴대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불법 미디어 파일 재생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
남한이 북한의 18.3배
인구대비 남한은 120%, 북한 7%



6,200만

18.3배



377만



남한 인구(5,100만)의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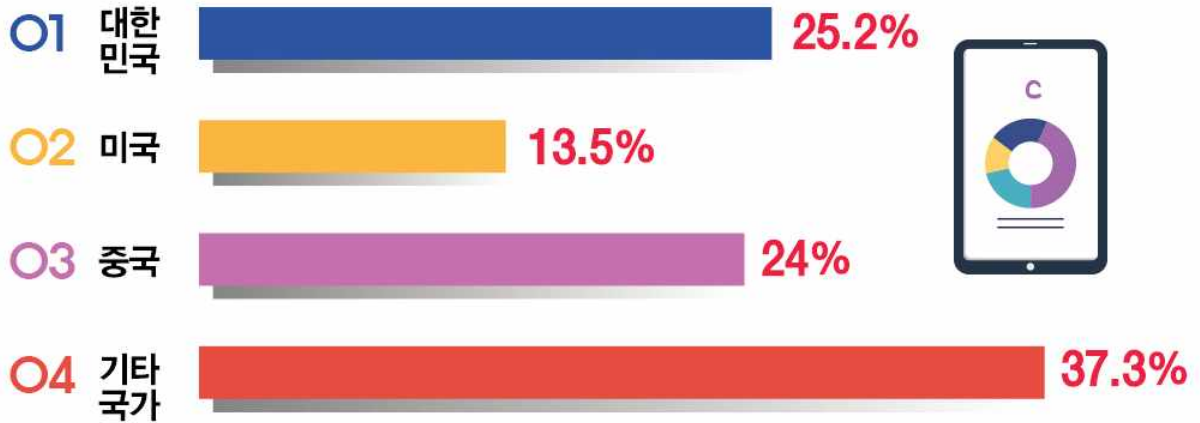
북한 인구(2,400만)의

7%



스마트폰 생산

남한, 세계 점유율 1위
북한, 2014년부터 생산 시작



※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스마트폰 앱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앱
- 라인·카카오톡 등 채팅앱
- 교통·음식배달·뱅크앱
- 교육·구인구직·통역·쇼핑몰·문화관광·여행앱 등 매우 다양



- 부동산·구인구직·물품거래 등 생활정보앱
- 문자·음성 채팅·번역앱
- 정수기관리·지리정보·PC원격조정앱



스마트폰 성능

남한, 초고속 4.5G LTE
북한, 4G 국내 인터넷만 허용



선호 기종

북한, 태블릿PC
남한, 울트라 슬림 노트북



초경량 고성능
노트북



태블릿PC '묘향'
(남한 2012년 수준)



스마트폰 가격



30~80만원대
최신 기종 기준



200~300달러
(*한화 23~34만원)
'평양(2015)' 스마트폰 기준



북한의 인터넷 게임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탱크 전쟁', '로봇 총쏘기' '비행기 싸 떨어지기', '말 따라잡기'와 북한 고려여행사 홍보용 게임 '평양 레이서' 등의 게임을 즐긴다. '평양 레이서'는 PC 전용 전자게임으로 평양 시내를 달리면서 연료통을 수집하고 개선문, 류경호텔, 주체사상탑 등 평양 시내 모습을 간접 체험하는 평양홍보 게임이다.



▲ 북한 고려여행사 홍보용 게임 '평양 레이서'

※ 참고자료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IT 기술 분석 및 협력방안〉 김종선 · 이준근 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북한 이동통신 시장 동향-이동전화 및 태블릿PC를 중심으로〉 서소영 저, 정보통신방송정책
통계청 〈2017년 3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북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정리한 코너입니다.



J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대북정책 망칠 5가지 함정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방문 때 “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응징’을 주문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봉착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다른 선택이 없었을지 모른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文대통령 “사드·위안부 문제,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에 파견한 새 정부 특사단으로부터 활동 보고를 받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더보기](#)

J 중앙일보

“북한 선제공격 땀 의회 승인 받아야” 미 민주당 의원 64명 트럼프에 서한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은 23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북핵 해결에 맞춰 추진”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보기](#)

문화일보

[時評] 북핵 못 막으면 통일도 어렵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인선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 관련 인사들의 면면을 보며 우리가 기대하는 점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념에 갇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더보기](#)

세계일보

北 김정은의 ‘마이웨이’ 文정부 대화재개 의지에 ‘찬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제가 마이웨이식 미사일 도발 행보로 남북대화 재개를 외교안보정책의 첫 출발점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더보기](#)

한국일보

北 태권도 시범단 내달 방한 문재인 정부 첫 남북교류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세계태권도연맹은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장에서 열리는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시범단을 파견하겠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더보기](#)

J 중앙일보

북핵 컨트롤타워, 군→외교관 출신으로 바꿨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취임 11일 만에 진용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인 대신 외교관이 임명된 게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이다.

[+더보기](#)

문화일보

北 고립작전속 대화문 살짝 연美... 韓·中과 공조강화 포석?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16일 대북 추가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하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줬다.

[+더보기](#)

한국일보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文정부, 美 보수층에 정면 대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보수층과의 기선잡기 싸움을 시작했다. 보수 언론에게 한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北 2세 미만 유아 73%가 영양분 섭취 부족”

북한에서 가임여성과 2세 미만의 유아 다수가 영양분 섭취 부족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제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더보기](#)

한국경제

“北 비핵화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안돼”

오피니언 리더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더보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국기를 걸고 뛰는 날이 소길..."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조소현 선수를 만나다



지난 4월 7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과 북한팀이
'2018 AFC 아시안컵' 본선 진출 티켓을 두고
아슬아슬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북한팀과는 1승2무14패라는 열세한 전적이 있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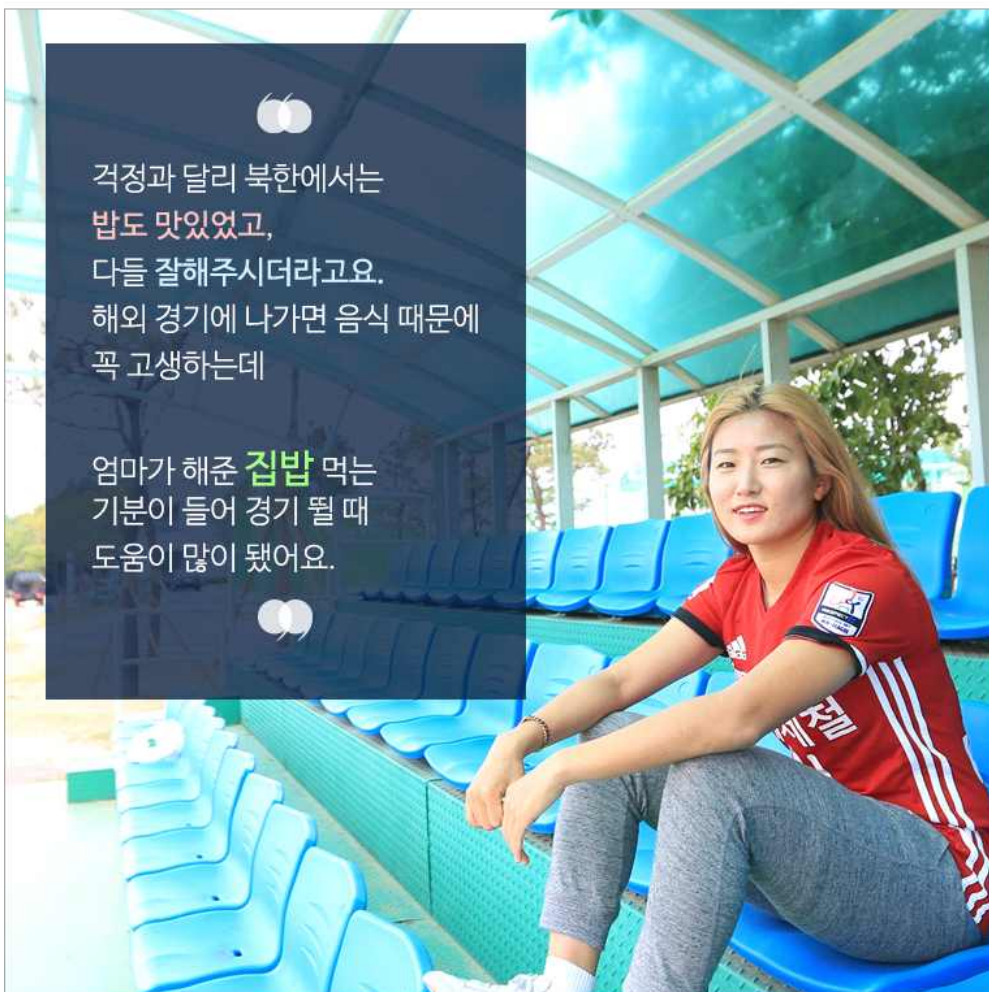
한국·인도·북한·홍콩·우즈베키스탄 5개 팀 대결 결과
우리 한국이 '3승1무'로 조 1위!

아시안컵 본선 진출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북한에서는
밥도 맛있었고,
다들 잘해주시더라고요.
해외 경기에 나가면 음식 때문에
꼭 고생하는데

엄마가 해준 **집밥** 먹는
기분이 들어 경기 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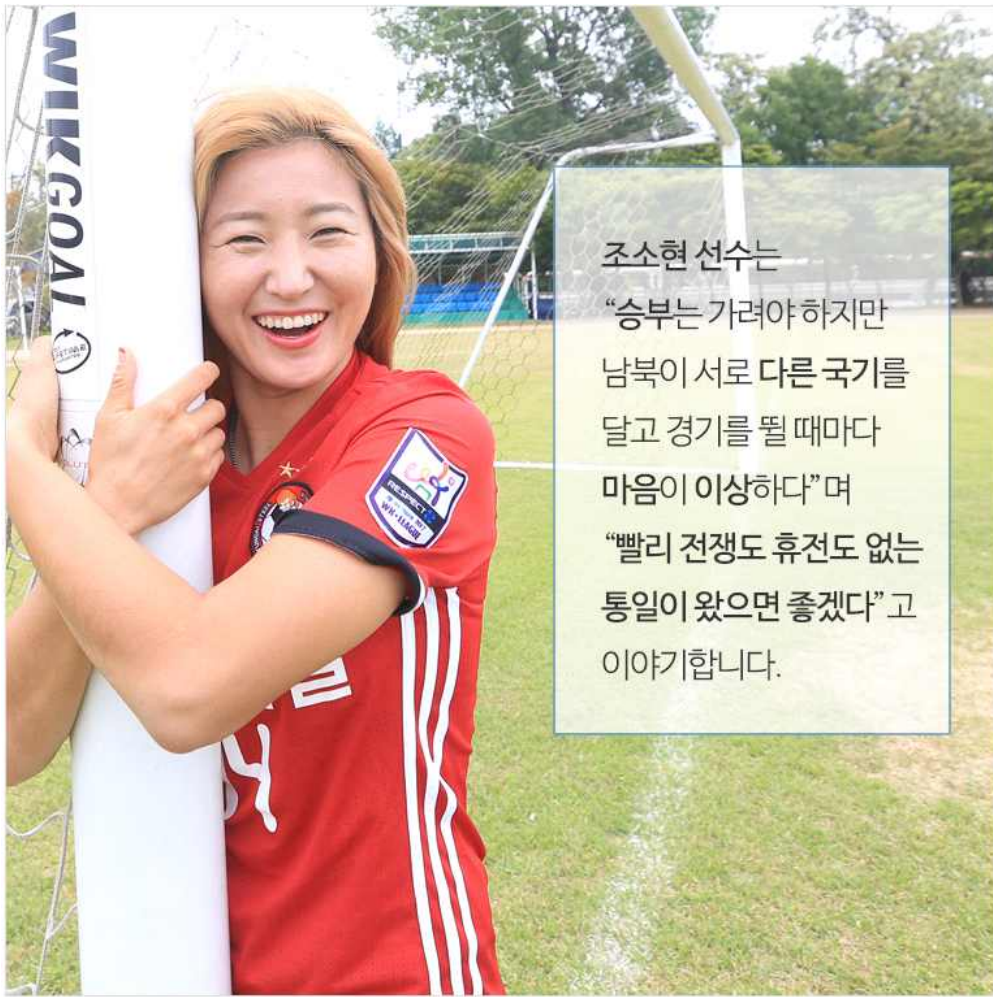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위해
스피커 6대를 크게 틀어놓고 압박훈련을 하는가 하면
포워드가 빠른 북한선수들의 역습에 대비해
수비 연습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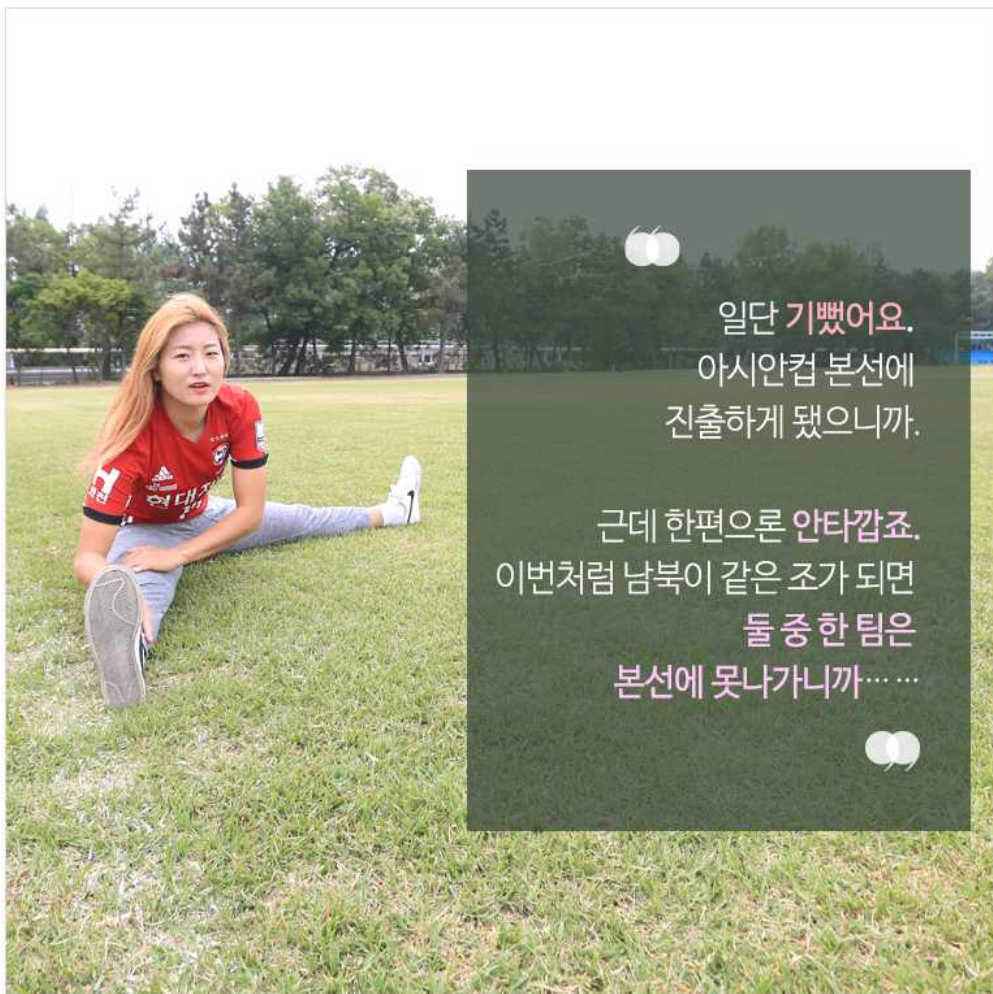


실제로 평양 경기장에서는 5만 관객의 함성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리한 환경에서도 무승부를 이끌어낸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참 멋지고 대견한데요.



조소현 선수는
“승부는 가려야 하지만
남북이 서로 다른 국기를
달고 경기를 뒀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다”며
“빨리 전쟁도 휴전도 없는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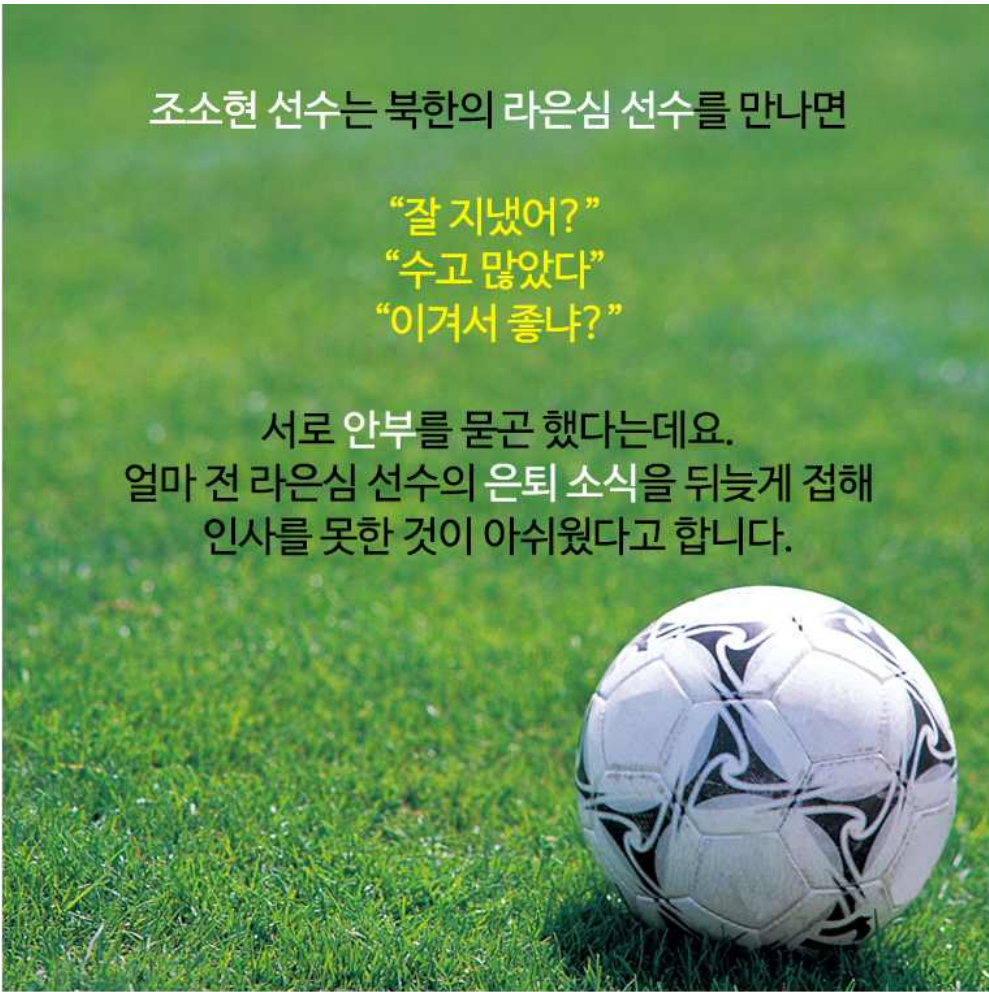
“
일단 기뻐어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으니까.

근데 한편으론 안타깝죠.
이번처럼 남북이 같은 조가 되면
둘 중 한 팀은
본선에 못나가니까……

조소현 선수는 북한의 라은심 선수를 만나면

“잘 지냈어?”
“수고 많았다”
“이겨서 좋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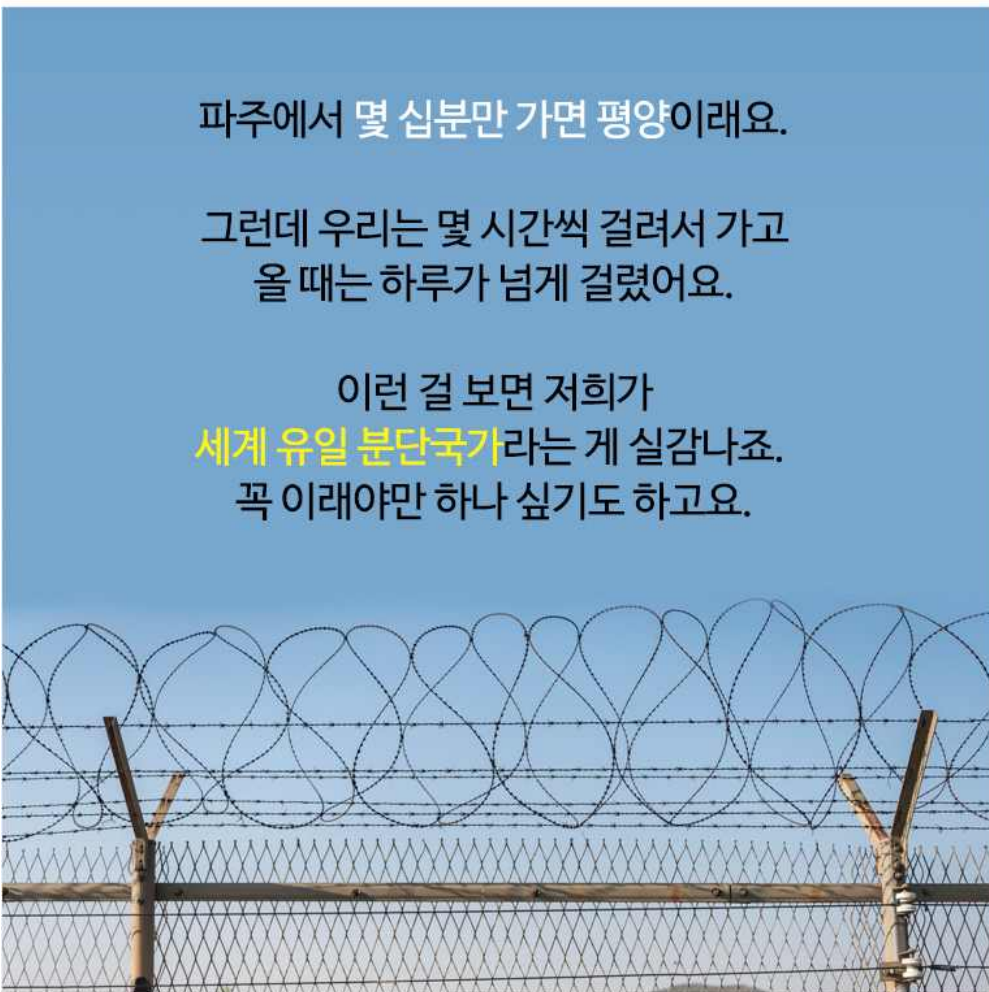
서로 안부를 묻곤 했다는데요.
얼마 전 라은심 선수의 은퇴 소식을 뒤늦게 접해
인사를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파주에서 몇 십분만 가면 평양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간씩 걸려서 가고
올 때는 하루가 넘게 걸렸어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게 실감나죠.
꼭 이래야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조소현 선수는 통일 한국의 여자축구는
훨씬 막강한 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스피드, 그리고
한민족 정신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조소현 선수는
여자축구 선수들이 많아지도록
여자축구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보험이 있다?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에도 재해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있다. 다만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유일하며 북한 국내에만 22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다. 해외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파키스탄, 멕시코, 영국에 대표부가 있는데, 이는 김정은 비자금 조성 창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북한의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북한에만 있는 '핵 보험'

북한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 인체보험, 재산보험 3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으로, 노동자 및 농민 소득의 일부 분과 각 기업 급여의 일정금액을 활용해 보험자금으로 사용한다.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 실업 등 보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과 요양 등의 혜택이 따른다. 또 남한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제도와 피보험자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폐질연금,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가족연금, 노인이 되면 주는 양로연금도 있다.

재산보험은 재산 손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불되지만 만기 보험료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보장성 보험이다. 북한정권만을 위한 보험도 있다. 바로 '핵 보험'이다. 오랫동안 핵을 개발해 온 북한에서는 이 핵 보험을 정권유지, 국외 경제지원 등을 받아내는 협상카드로 사용된다. 핵은 북한정권의 최고 보험 상품이기도 하다.



▲ 국제보험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보험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북한의 보험 시스템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높이는 목적으로 보험총국에서 총괄 하되 각 기관 재정부서에서 매월 지불되는 월급에 근거해 적용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한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공제해 지불하고 있다. 개인은 국가의 전반적 활동영역에 참여하는 이상 근로자든 사무원(공무원) 이든 인체보험 대상인 것이다.

재산보험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국가의 소유를 염두에 둔 보험이며, 보장성과 환급금은 보험총국에서 피해 기관에 규정된 액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험 혜택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월급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회여서 노동자들은 얼마를 무슨 근거로 공제하는지를 알고있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느끼지 않은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다.

남한의 국민연금처럼 북한에도 “600g에 2,500원”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국가훈장이나 김 부자 표창 등 국가 활동 참여기간에 받은 명예칭호나 증서를 가지고 정년 퇴직 후 국가에서 매일 식량 600g에 월급 2,500원을 공급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제도는 형식상 제도일 뿐 배급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하락하는 현실에서 실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 북한도 국가라는 형식의 틀에서 “세금 없는 나라”라고 주장은 하지만 노동력에 의한 수입원을 보험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재미는 경제가 쪼들릴수록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종의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이다.

북한에는 어떤 보험법이 있을까?

북한에서 보험법이 제정된 시기는 1995년 4월 6일에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격)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돼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4차례 수정, 보충되었다. 첫 채택 시기는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핵 동결과 경수로 제공으로 KEDO(케도, 신포경수로발전소) 사업을 진척하던 시기인 것이다.

그 이후 수정보충한 시기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일 때나 실제 활성화되던 시기로서 개성공단이나 나진특구를 겨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북한 보험법 제1장 3조 ‘보험의 분류’에는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기술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배상책임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북한 원산구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제1장 8조 ‘보험법의 적용제한’에는 <이 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험법’은 철두철미 외국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북한 영역에서 활동할 때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법’이라고 보면 된다.

외화만을 노리는 북한의 보험활동



▲ 북한에서는 외화의 가치가 높다

북한 보험의 첫 ‘사냥 대상’은 주북 외국공관 및 외국투자자, 외국인, 해외동포들이다. 이들에게는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을 의무(강제)적으로 들도록 한 보험법 제1장 4조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북한영역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현실을 겪어보았으리라 본다. 북한 안에서 시행되는 법이므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보험의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이라 생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북한 보험기관은 자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지불능력도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보험법의 서두에 ‘국가와 기관, 단체, 공민, 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이라고 밝혀 마치 이중성이 없는 것처럼 서술한다. 북한 보험도 ‘오리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보험 상품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 내라는대로 내야 하는 북한식 ‘조폭행위’가 빈번 들여다보인다는 것이다. 북한 보험총국은 형식상으로는 내각에 소속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와 외화수입은 노동당 39호실로 경권의 통치자금줄 역할을 한다. 비단 북한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재보험에 가입해 목돈을 챙기는 사례가 농후하다.

대표적 사례로 2007년에 30년생 6천 톤급 무역선을 영국 재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1년 6개월 후에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침몰시킨 뒤 영국의 보험회사의 현장검증까지 받아 사전에 준비한 사고현장 자료를 제출하여 수백만 달러를 챙기는 ‘요기’도 발휘했다. “재미있는 곳에서 호랑이 나온다”고 같은 수법을 반복하다가 영국재보험사의 예리한 눈치리에 걸려 무고한 무역선만 폐선시키고 피 같은 돈을 수장시키는 희비극도 연출한 북한 보험총국의 성과(?)에 필자 개인으로서 동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북한의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험이 주는 보상의 의미를 알지만 엘리트층은 보험이 날아가는 돈을 잡는 것이라고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총국이나 무역기관, 은행 등 전문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보험이 뭘지 아느냐고 물으면 대뜸 “보험이 먹는 거야? 입는 거야?”하고 되물을 정도로 보험에 대한 상식이 전무하다.

북한도 남한과 같이 강도, 살인, 강간, 도둑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는 동일하나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보험사기'다. 알아야 도둑질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험의 장단점을 모르는 북한에서 보험중사자들이 서류조작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들만의 즐거운 '독점물'이다. 만약 남한에서처럼 보험사나 보험 상품들이 너무 많아 어리둥절 한다면, 머리 좋고 순진한 북한 주민들이 일순간에 '악마'로 돌변해 천륜을 잃을까봐 걱정스럽다.

남한은 생명보험, 북한은 인체보험?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자면 남과 북의 보험 명칭부터 비교해 봐야 한다. 먼저 남한의 생명보험을 북한에서는 '인체보험'이라고 한다. 남한에서는 생명보험을 들 때 본인의 연령과 경제적 여건에 준하여 다양한 보험사를 선택, 비교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미래에 대비해 실손보험을 든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개인이나 가정이라도 장담할 수 없는 사고로 병원신세를 질수 있다는 '미래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실손보험 하나쯤은 '보석'처럼 가지고 있다. 다만, 생명보험은 보장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큰 만큼 단 기간에 지불해 큰돈을 벌고자 하는 사기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인체보험'은 개인이 드는 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공제하는 일종의 '국가보험'이다. 그것도 국가가 제정한 재정원칙에 따라 할당되는 급여에서 인체보험을 공제한다. 문제는 노동 현장이나 공무원집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돌려받는 것이 없다는데 있다.

단,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가 속한 기관의 재정과에서 사망자의 생전 급여 중 공제한 인체보험료의 30%를 부조형식으로 지불한다. 북한은 월급의 가치가 없으니 30년 인체보험의 30%면 쌀 15kg을 사나마나한 액수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보험은 보험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을지 모르지만, 북한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제도를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싶다.



▲ 북한은 헌법에 무상치료를 명시했으나 90년대부터는 유상치료가 됐다

제도 따로 보험 따로 구분하면 답을 찾기 어려우나 제도를 주어로 하고 보험을 술어로 해서 읽으면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된다. 북한의 헌법에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의료제도는 무상치료제'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상 1990년대부터 북한의 의료기관은 이미 유상치료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 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순직 및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미망인에게 고인의 생전 월급 중 80%를 미망인 사망 시까지 지불하고, 고인이 생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회사에서 계약된 금액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일까?

북한에서도 이를 '순직'이라고 부르긴 한다. 남북 모두 국가의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면 '순직'이라고 부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정치적인 배려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정작 물질적인 보상에

있어서는 남북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북한에서 40년 이상을 살며 병원에도 입원해봤고 면회도 다녀봤지만, 또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에도 수없이 다녀봤지만 직장 재정기관이나 동료들이 주는 부조 외에 '보험금'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직장 재정기관에서 주는 부조도 한국 돈으로 치면 1~2만원에 불과하다.

죽은 정승이 산 개만 한다더냐?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두렵지만, '인간 중심 사회'라고 자찬하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목숨을 신분에 따라 값을 구별한다. 평양의 학생소년궁전이 자리 잡고 있는 광복거리 아파트 단지에서 2008년 12월 중구역에 사는 60대 어르신(여성분)이 딸의 집에 갔다가 저녁 9시경 버스를 타러 나오다가 차에 치어 사고가 났다. 골목길이었고 속도도 느린 승용차에 부딪혔지만 그날 내린 눈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갔다.

어르신은 심한 뇌출혈로 병원 도착 1시간 반 만에 사망했고, 가족 측과 가해자 소속인 모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장례식에 쓸 물자를 보장하고, 200달러어치의 TV와 150달러의 중국산 세탁기, 쌀 200kg을 주는 조건이었다. 피해자 측은 구류장에 있는 가해자가 갓 결혼한 30대 가장이란 점을 들어 이 합의금을 받고 보안성(경찰청에 해당)에 가해자를 용서해줄 것을 요청해 13일 만에 석방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회사원이었기에 한국 돈 80만 원에 해당하는 물자를 받고 합의해주었지만 만약 능력 없는 가해자였다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합의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교통사고로 인한 명백한 사망사고로 인정됐기에 망정이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면 위에서 말한 한국 돈 1~2만 원의 부조를 받고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희생증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단 김 부자 초상화를 그리거나 정치적 가치가 있는 대상물을 건설하거나 방화로부터 보위하다가 사망하면 출판물에 크게 보도되고 자식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엘리트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다.



▲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아들과 인사하며 눈물 흘리는 할머니

그래서 북한에서는 죽어도 정치적인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죽음 자체를 미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정승 산 개만 한다더냐?’라는 옛말로 목숨의 귀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가난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 보험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소원과, 그런 돈 필요 없으니 오래만 살아계시면 된다는 자식들의 효성이 만나 강산을 울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행복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환하게 웃는 통일의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려 본다.

‘제 2의 달콤한 인생’을 꿈꾸다

양봉 전문가 김철진 씨 부부

괴산군 조천리의 5월은 사방이 꽃밭이다. 숲에는 하얀 야카시아꽃이 지천이고 마을 길목에는 샛노란 참포꽃과 양증맞은 은방울꽃, 향긋한 짙레꽃이 그득하다. 이렇게 꽃들이 만개하는 봄철엔 김철진, 이애정 부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벌들이 몰려다주는 꿀과 꽃가루를 바지런히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산골짜기 움막살이로 시작해 양봉 전문가로 거듭난 탈북민 김철진 씨의 ‘꿀농사 이야기’를 들어봤다.



🌱 꿀벌에서 희망을 발견한 탈북민 부부

부부에게 오늘이 있기까지는 고단한 시간이 많았다. 남편 김철진 씨는 하나원을 나와 노동일부터 택배기사, 마트 배달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뚜렷한 기술 없이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모든 게 ‘제로(0)’가 되어버린 듯한 상황. 앞길이 막막해 좌절감에 빠진 철진 씨는 ‘자유인’을 선언하며 무작정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때 철진 씨에게 ‘평강공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아내 이애정 씨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쪽이자 친구를 만난 것이다. 북에서 군생활을 했던 애정 씨는 언제나 남편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아내였다. 의지할 곳이 생긴 까닭인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부터 좋은 일들이 생겼다. 애정 씨의 아들은 큰 기업에 취직해 해마다 승진을 했고, 철진 씨는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다. 바로 ‘꿀농사’다.

“마트에 갔다가 설탕과 꿀 가격을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북에서 작게 양봉농사를 지었었는데, 꽃이 피지 않는 겨울에는 설탕이 벌들 양식이거든요. 한국은 설탕이 싸니까 부담 없이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 충북 괴산에 있는 김철진 씨 부부 양봉농장



▲ 벌통 점검하는 김철진 탈북민

🌱 첫 양봉 실패 후 체계적인 교육 및 경험으로 아카시아꿀 4톤 수확

양봉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는 일단 벌통 100개를 샀다. 50통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렸으니 하루빨리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 보증금까지 빼 마련한 벌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남한 양봉에 적합한 벌통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일로 부부는 한동안 빌려둔 터에서 움막집 신세를 졌다. 하지만 믿고 의지할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1년간 갖은 일을 통해 열심히 번 돈을 모아 양봉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시 마련했다.

부부가 양봉을 다시 시작하려던 찰나 좋은 기회도 찾아왔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양봉대학'을 개설한 것이었다. 덕분에 철진 씨는 남한의 양봉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사이 아내 애정 씨는 다른 양봉농장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좋은 기술은 언제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법이니 직접 농장에 들어가 몸으로 느끼고 배우겠다는 판단이었다. 부부는 이렇게 발품을 팔아 꿀농사를 시작했고, 2014년 5월 첫 결실로 꿀 4톤을 수확했다. 지금은 꿀뿐만 아니라 꽃가루 화분과 프로폴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마음을 녹인 꿀로 조천리 동네사람이 되다

“처음엔 남한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양봉 용어는 남북이 똑같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양봉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기억 덕분에 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빨리 훑어갈 수 있었어요.”

철진 씨가 양봉 농장을 경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은 양봉대학에서 배웠던 계절별 꿀통 관리법이다. 북한과 기온 차이가 큰 남한에서는 화분떡을 주는 시기부터 꿀을 뜨는 수확시기, 병충해 및 벌통 관리법이 많이 달랐다. 특히 벌통은 벌들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아끼 키우듯 자주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했다.

꿀농사 만큼이나 중요한 건 '홍보'였다. '입소문' 없이는 장사가 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하게 얻은 첫 수확이지만 그 꿀은 아예 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김 씨 부부표 꿀을 보내주기 위해서다. 일단 꿀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부부의 전략이었다. '안 버는 것처럼 하는 게 장사'라는 철진 씨는 손님들이 꿀을 5병 주문하면 6병을 보내주고, 10병을 주문하면 12병을 보내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입소문보다 빠른 게 없잖아요? 돈은 아르바이트 해서 벌면 되지만, 소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꿀을 돌리고 나니까 서울에서도 주문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연예인 관계자들까지 직접 찾아와서 저희 꿀을 사가시기도 했어요.”

부부표 꿀은 조천리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도 누그러뜨렸다. 집성촌인 까닭에 외지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부부는 늘 먼저 머리 숙이며 인사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애썼다. 꿀을 뜨면 동네 경로당과 마을 사람들에게 꿀을 선물하기도 했다. 덕분에 김 씨 부부는 탈북민이나 외지인이 아닌 '진짜 동네사람'이 됐다.



▲ 알코올 증기로 벌통 소독 중인 부부

🌱 통일후 북한에서 장사의 꿈을 키우는 철진 씨

부부는 작년 10월 통일부에서 수여하는 '탈북민 정착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남북한 기술을 접목해 양봉농사를 지으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매년 철진 씨네 농장을 방문해 양봉관련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덕분에 철진 씨 농장으로 양봉을 배우러 오려는 농가들도 늘고 있다. 철진 씨는 북한에서도 이름 난 장사꾼이었다. '국군 포로' 집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상도 함안이 고향인 철진 씨의 아버지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해 장진호전투까지 참전해 동부전선까지 나갔다 포로가 되었다.



▲ 벌통을 점검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

“저희 아버지는 남한에선 훈장을 받았지만 북한에선 포로가 되어서 여생을 탄광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 역시 포로의 자식이라고 평생 차별을 받았죠.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못 갔고, 군대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장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철진 씨는 통일이 되면 북한 청진에 가서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단다. 남한에서 배운 기술을 갖고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다. 그 때까지 철진 씨 부부는 남한에서 열심히 달콤한 꿀농사를 지을 생각이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 행복이네

20XX년 남북한이 하나 된 가상의 대한민국,
다복한 행복이네 가족 3대의 일상을 통해 통일 한국의 희망찬 이야기를 미리 만나봅니다.

통일 한국은 '세계 평화 지킴이'

글. 김혜진 / 그림. 이택종



그렇단다.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안타깝게 국군 포로가
되어 탄광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지.

다행히도 통일 후엔 명예회복도
되고, 차별받던 아버님도 국가
유공자로 우대받으시니 하늘에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난 여기 DMZ 근처에서 10년간
군 생활 했는데 지금은 세계인들이
순례하는 평화공원이 됐네.

전쟁이 왜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되는지 여기 오면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이제 통일한국의 안보 걱정은
해결됐으니, 남북한 군사력이 합쳐져
군사 강국이 된 한국이 세계평화를
지켜야지. 허허허

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여름, 대나무 숲에 서면 익산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 도종환,

초여름이라고 부르는 이른 감이 있지만 다가올 여름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무더운, 어느 날이었다. 마음도 갈증을 무척이나 탄다고 그럴 때는 대나무 숲을 걸었다는 그대의 말이 생각나 무작정 대나무 숲을 찾았더랬다. 멀고 알려지지 않은, 마주치는 것이 오직 잘 자란 대나무뿐인 한적한 곳. 6월의 대나무 숲은 아름다웠다.

사각사각 댓잎 소리를 따라 거닐다,
구룡마을 대나무 숲



▲ 구룡마을 대나무 숲

마을 전체를 안고 돌 만큼 넓게 퍼져 있는 대나무 숲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예전 죽공예품을 생업으로 삼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조성한 대나무 숲은 스스로 품을 넓혀 울창해졌다. 무더운 날이었지만 대숲에 들어서니 온통 서늘한 그늘이고 바람이 댓잎을 스치는 소리가 시원하다. 대나무 낙엽이 켜켜이 쌓여 이불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푹신하다. 그리고 보면 대나무가 몇 백 년 동안 쌓아놓은 역사를 걸고 있는 셈이다.

혼자 걸어도 같이 걷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걷고 싶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해온 기분이 든다. 채도가 다른 초록으로 가득 찬 비밀의 숲은 천 년 동안 이어온 익산의 역사를 품은 듯하다. 사철 푸르고 부러지나 휘지 않아 옛 선비들이 곁에 두고 마음을 다잡았다는 대나무는 곁에서 있기에 해도 마음이 청신해진다. 그 고즈넉함과 고요함은 빠르게 생각하는 청년의 젊음보다는 점차 지혜로워지는 중년의 아름다움 같이 풍부하고 깊어지는 맛이 있다.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데, 그 속도라면 발치의 한 뼘도 안 되는 죽순도 금세 내 키를 넘어 자라겠구나 싶어서 더 유심히 바라본다. 죽순들이 조그맣게 모습을 드러낸 옆,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다. 그렇게 그대도 나도 참 멀리부터 오래 걸어왔구나, 그렇게 스스로 평안했던 시간이었다.



▲ 막 땅속을 뚫고 나온 죽순

만남과 그리움의 역사 앞에 마주서다, 미륵사지에서 춘포역까지

익산은 유서가 깊은 곳이다. 옛 백제의 도읍으로 서동과 선화공주의 전설이 깃든 상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잔디밭과 주춧돌만 남은 빈 터의 공허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이곳은 어떠한 만남이든 화해든 사랑이든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대답을 하리라.

옛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빌어주었던, 동탑은 사라지고 서탑은 무너져 절반만 남았었다. 그 자리에 다시 천 년 쯤 지나 사람들이 다시 두 개의 탑을 세우고 있다. 머지않아 두 탑은 다시 마주보게 될 것이고, 천 년 쯤 더 지나면 또 다른 전설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 미륵사지에서 전주 방향인 남쪽으로 30여 분쯤 내려오면 춘포역이 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그림처럼 오뎅하게 서 있는 춘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일제 강점기 드넓은 들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1914년 일제가 건설한 전라선의 한 역이었다. 철도가 폐선되면서 춘포역은 2011년부터 문을 닫았으나, 2012년부터는 추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역 앞에는 붉은 하트를 소중히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소년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조형물 발아래에는 간절히 소원을 빌면 들어줄 거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적혀 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로 성숙해 나간다. 태어나 만나고 이별하고 또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나가면서 철로가 끝없이 이어지듯 자신의 삶이 이어간다. 그 지점 어딘가에서 마주친 어떤 만남은 멀리서 들려올 것 같은 기차의 경적처럼 반갑고 설렌다. 마중 나가듯 그렇게 계속 걸어간다. 여행은 이어진다.



▲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된 동탑



▲ 대한민국 근대화유산인 춘포역



▲ 춘포역에 설치된 느린우체통

때론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있다, 가람 이병기 생가에서 여산 충훈탑까지

청년 이병기가 주시경 선생을 만난 건 20세가 되던 1911년, 서울의 조선어강습원이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책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강의실에 들어와 열정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던 주시경 선생에 감화되었다. 그때부터 가람은 우리말과 얼을 지키기 위한 길로 뛰어들게 된다. 어쩌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주시경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람은 국문학 연구를 지속해나간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렀고,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위원이기도 할 만큼 저명한 국어학자였지만, 대중에게는 시조 시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잠자코 호을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는 〈별〉의 구절처럼 홀로 밤하늘과 같은 일제강점기를 지켜온 시대의 거목이었다.

가람이 기거하던 곳은 '수우재(守愚齋)'라는 편액이 붙어 있는데, '바보처럼 어리석음을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다. 바보가 아닌 보통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이해관계에 초연한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기와집이 아닌 여러 채의 초가로 이루어진 가람의 생가 역시 그의 담박하고 단단한 성품과 닮지 않았을까 싶다.

자신의 안위보다 조국을 위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어받기라도 한 듯 가람의 생가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여산 공설모지와 '여산 충훈탑'이 있다. 나지막한 산등성이 아래 6.25 전쟁 당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충훈탑이 조성되어 있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비통하고 애달픈 역사가 담겨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곳의 풍경은 그윽하고 평화로웠다. 그것이 지친 여행자의 마음까지 충분히 위로해줄 만큼 따뜻했다.



▲ 가람 이병기 동상



▲가람 이병기 생가의 전경



▲가람이 주로 기거하던 '수우재'의 편액

여행이 시작됐던 구룡마을의 대숲부터 오는 길 내내 익산 어디든 대나무 숲이 있었다. 어쩌면 천 년 전에도 무성했을 대나무 숲처럼, 앞으로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지 않을까. 또 백년에 한 번 핀다는 대나무 꽃처럼 귀하게 반겨 맞이할 만남을 기다리면서 길도 삶도 이어진다. 오늘도 안녕히, 잘 걸어왔다.

〈글: 김혜진 / 사진: 김규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도 특산물 가지로 만든 담백한 맛, 가지순대

평안도 지역은 다양한 찹쌀로 만든 노치, 녹두로 전을 만든 녹두지짐 등 특색 있는 음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남새(채소의 북한말)' 중에서는 가지를 이용한 요리가 잘 알려져 있다. 가지나물, 가지김치 등이 유명하고 가지의 속을 파낸 뒤 고기, 배추 등을 채워 넣은 가지순대는 채소로 순대를 만들어낸 별미로 사랑받고 있다. 가지순대는 우리에게 익숙한 돼지창자로 만든 순대와는 달리 담백하고 냄새가 없으며, 가지의 달달한 맛이 은은하게 입맛을 돋우는 요리다.



요리재료

가지 2개, 다진 돼지고기 100g, 두부 1/4모, 부추 30g, 숙주 30g, 배추 2장, 양배추 2장, 무 50g, 청양고추 2개
양념장 재료 : 소금 1작은 술, 후춧가루 약간, 간장 1작은 술, 깨소금 2작은 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작은 술

Step 1



찜기에 양배추, 숙주, 무, 배추를 넣고 찜 뒤
곱게 다져 물기를 제거한다.

Step 2



3등분 한 가지는 속을 파내고,
두부는 으깨서 물기를 제거한다.

Step 3



부추와 고추는 잘게 다져준다.

Step 4



속 재료와 양념을 볼에 넣어 버무려준 다음
가지 속에 소를 가득 채운다.

Step 5



김이 오르는 찜기에 넣고 10여 분간 찜준다.

Step 6



찌낸 가지에 랍을 씌워 차게 식힌 뒤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

젊음을 지켜주는 식재료, 가지

재료의 맛을 살려 볶아먹어도 맛있고, 바삭하게 튀겨내도 달콤한 가지의 매력은 남한보다는 북한에 많이 퍼진 듯하다. 가지에 고기소를 넣고 양념해 끓인 가지선, 가지랭채, 가지랑국 등 요리의 종류도 풍부하지만, 북에서는 가지에 항암효과가 뛰어나다며 젊음을 지켜주는 식재료라 홍보한다.

더불어 고기요리를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실정 속에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남새 요리(채소 요리)'를 추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장천남새 전문협동농장을 언론에 공개해 가지, 고추, 부추 등 수많은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언론 <조선의 오늘>이 '농장에는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장천원, 문화주택 등이 있으며, 장천원은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 봉사시설이 있어 평양에 위치한 창광원*에 견줄 만하다'고 밝힐 정도니 북한의 '남새'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 '창광원'은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위생문화편의기지로 1층에는 개별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이, 2·3층에는 대중목욕탕이, 4층에는 개별목욕탕과 가족목욕탕 등이 있다. 그밖에 실내외 물놀이장과 수영경기장도 있다.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협의회,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평화통일 한민족 축제 및 포럼, 퀴즈대회 등 열어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회장 이재완)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과 카자흐국립대에서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청년통일퀴즈대회(5.18)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민족 포럼(5.19) △평화통일 한민족 축제(5.20) △자문위원 간담회(5.21) 순으로 나흘 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재완 협의회장, 라종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 전승민 총영사, 성기영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신브로니슬라브 알마티고려문화중앙회장, 박이반 알마티고려문화중앙 명예회장 등의 주요인사와 대학생, 한인 교포, 고려인 동포, 시민, 자문위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18일 첫 날에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가 주관한 '청년통일 퀴즈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고려인 및 한인교포 대학생 120여 명이 참가했으며, 퀴즈는 민주평통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시다' 책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19일에는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기리고 한민족 이주 및 귀한의 역사를 고찰해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민족 포럼'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150여 명의 주요인사 및 국내외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북한사회의 실상과 통일문제 이해, 한국 거주 해외동포들의 현황과 애로사항,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이주과정 등이 논의됐다.

20일에는 한인교포와 고려인 동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평화통일기원 한민족 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중앙아시아협의회장배 축구대회를 비롯해 제기차기, 줄넘기, 투호, 태권도 시범, 한복·카작 등 전통 의상 입고 사진 찍기, 김밥 만들기, 알마티 고려문화중앙 공연단 축하공연, 장학금 수여 및 백일장 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17명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한인교포사회와 고려인사회의 화합·단결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17기 탈북청소년 우수 멘토링 시상식' 개최 탈북청소년 정착과 성장 도운 멘토 자문위원 36명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5월 22일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준 36명의 멘토 자문위원들에게 '17기 탈북청소년 우수 멘토링 상'을 시상했다. 행사에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4명의 멘토 자문위원과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권태오 사무처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탈북민청소년들의 취업 및 학습을 지도해준 남기영 멘토 자문위원이, 우수상은 탈북민청소년 및 탈북민 가정들을 지원해준 최은섭, 정인숙, 이정수 멘토 자문위원이 각각 수상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통일
아카데미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서울 중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경기 용인시협의회)



▲ 통일대학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경기 안산시협의회)

서울 중구협의회(양우진 협의회장) 5월 13일 JSA공동경비구역에서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7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9강으로 '통일비전과 국론통합' 강연을 진행했고, 24일 수료식을 가졌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1일 '통일 대학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8강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세' 강의를, 18일에는 9강인 '외교 및 동북아 국제정세'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인천 계양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경남 창원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충남 천안시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11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8강에서 '북한주민이 동경하는 한국' 강연을, 18일 9강에서는 '북핵 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연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24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6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과제' 강연을 진행했고,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9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9강으로 '통일과 한류드라마' 강연을, 16일에는 수료식을 진행했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강원 속초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대구지역회의)



대구지역회의(부위원장 박규하)는 15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8강인 '남북분단과 통일문제' 강연을 진행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10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7강에서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을, 16일 8강에서는 '북한 경제현황과 전망' 강연을 각각 실시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서울 강동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서울 금천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북 충주시협의회)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이종춘)는 12일 자문위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고,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19일 자문위원과 주부대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11일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지역주민, 대학생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기 이천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기 군포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남 밀양시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5일 시민, 자문위원 200여 명과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백영자)도 18일 시민,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1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 자문위원 320여 명과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포럼 및
강연회



▲ 충북평화통일포럼(충북지역회의)



▼ 2차 광주평화통일포럼(광주지역회의)

충북지역회의(부위원장, 포럼대표 한상길)는 25일 '제33차 충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광주지역회의(부위원장 최상준)는 1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2017년도 2차 광주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자문위원
연수



▲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연수(전남 장성군협의회)



▲ 상반기 자문위원 연수(충남 아산시협의회)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DMZ 일대에서 '2017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고,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11일부터 12일까지 '2017 상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해 통역에 있는 6.25전쟁 유적지 및 역사 유적지를 답사했다.

▼ 충북지역 간부자문위원 통일워크숍(충북지역회의)



▲ 통일워크숍(강원지역회의)

합동 워크숍
▼ (강원 고성군협의회&제주 서귀포시협의회)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18일부터 19일까지 '2017 충북지역 간부자문위원 통일워크숍'을 개최했고,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양태호)는 17일부터 3일간 통일워크숍을 개최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황병구)와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성군 일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
좌담회



▲ 여성통일좌담회(부산 서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좌담회 - 동네방네 통일이야기 (전북 전주협의회)

▼ 여성 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경북 청송군협의회)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 여성분과위원장 이옥희)는 25일 '2017년 여성통일좌담회'를 개최했고, 같은 날 전북 전주협의회(회장 나춘균, 여성위원장 권경숙)는 지역주민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지도자 통일공감좌담회 - 동네방네 통일이야기'를 열었으며,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17일 '여성 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진행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경북 상주시협의회)

▼ 통일공감 좌담회(경남 남해군협의회)



▼ 통일 좌담회(충북 괴산군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6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최했고,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12일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문위원들과 함께 '탈북강사와 함께 하는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었으며,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11일 지역 여성대표들과 '통일 좌담회'를 열어 탈북강사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남 영광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좌담회(경남 양산시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남 구례군협의회)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2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었고,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24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좌담회'를 실시했으며,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도 12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최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남 고흥군협의회)



▲ 통일공감 좌담회(강원 양양군협의회)



▲ 통일좌담회(충북 음성군협의회)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는 11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실시했고,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김현수)는 22일 양양군 여성리더들과 함께 '통일공감 좌담회'를 진행했으며, 충북 음성군협의회(회장 민병대)는 23일 '교육과 사회를 통해 본 북한 이해'에 관한 통일좌담회를 가졌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북 김제시협의회)



▲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강원 홍천군협의회)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22일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에서 '2017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었고,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23일 '제2기 통일대학' 수료생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청주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통일문화제(충북 청주시협의회)



▲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평화통일염원 어울마당 (전북 부안군협의회)



▲ 통일로 함께 가는 평화통일 기원 및 문화탐방 (제주 제주시협의회)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12일 오창호수공원에서 시민 500여 명과 함께 '2017 청주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통일문화제'를 열었으며,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6일 부안 마실축제 기간(5월 4일부터 6일까지) 동안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평화통일염원 어울마당'을 개최했고,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13일 탈북민과 함께 '통일로 함께 가는 평화통일 기원 및 문화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 통일 공감 콘서트(광주 동구협의회)



▲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대전 서구협의회)



▲ 통일공감 토크콘서트(전남 보성군협의회)

광주 동구협의회(회장 김행자)는 24일 '최근 북한사회 변화와 문화로 여는 통일'에 관한 통일 공감 콘서트를 열었고,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8일 '2017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실상 바로알기'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김길두)는 17일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인권문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다.



▲ 어린이날 큰잔치 통일이 되면 사생대회(경북 군위군협의회)



▼ 통일의 꿈,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추천 그림 전시(경북 성주군협의회)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분국)는 5일 어린이 1,500여 명과 함께 '2017년 어린이날 큰잔치 통일이 되면 사생대회'를 개최했고,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김영조)는 초등학교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 꿈,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추천받은 40여 점의 그림을 18일부터 21일까지 '나라사랑 통일 홍보관' 부스에 전시했다.



▲ 군민안녕 및 평화올림픽의원 한마음 다짐대회 (강원 홍천군협의회)



▲ 여성리더 통일퀴즈 대회(경남 함양군협의회)



▲ 평화통일 홍보 활동(경북 성주군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2일 무궁화공원에서 '군민안녕 및 평화올림픽의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고,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26일 '여성리더 통일퀴즈 대회'를 열었으며,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김영조)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성밖숲 어울림마당에서 '2017 나라사랑 통일홍보관', '함께해요 행복한 통일'을 테마로 평화통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 통일현장 견학(부산 동래구협의회)



▲ 안보현장 탐방(경북 칠곡군협의회)



▲ 제17기 자문위원 통일안보체험(경북 예천군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18일 국립산청호국원 일원에서 '통일현장 견학'을 실시했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 지역 휴전선으로 안보현장 탐방을 다녀왔으며,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20일 '제17기 자문위원 통일안보체험'을 진행했다.



▲ 용인시민평화누리 안보체험(경기 용인시협의회)



▲ 안보현장견학 및 고양시협의회 방문(전남 여수시협의회)



▲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서울 노원구협의회)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6일부터 18일까지 '2017 용인시민평화누리 안보체험'을 실시했고,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박정일)는 10일부터 11일까지 '2017 안보현장견학 및 고양시협의회 방문'을 진행했으며,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11일 문경에 있는 박열의사 기념관에서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을 개최했다.



▲ 나라사랑 안보현장체험(부산 수영구협의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견학(충남 보령시협의회)



▲ 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 견학(충북 음성군협의회)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김종수)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양구를 방문해 나라사랑 안보현장체험을 실시했고,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11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견학'을 개최해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견학했으며, 충북 음성군협의회(회장 민병대)는 11일 천안함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방문해 '2017년 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 제17기 통일안보현장 견학(부산 동구협의회)



▲ 지역 주민 통일 안보 교육(충남 금산군협의회)

▼ 유관기관 담당관과 함께하는 안보연수 (대구 달성군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11일 해군 2함대 안보공원 등으로 '제17기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태진수)는 11일 '2017년 지역 주민 통일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22일부터 1박2일간 '유관기관 담당관과 함께하는 안보연수'를 개최해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고,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10일부터 11일까지 '통일교육 워크숍'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와 6.25체험관을 방문했다.



▲ 통일교육 워크숍(경기 김포시협의회)

통일미래세대 육성

통일
골든벨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서울지역대회(서울지역회의)



▲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경기도 대회(경기지역회의)

서울지역회의(부위원장 손경식)는 23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2017년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서울지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고등학생, 지도교사 및 자문위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이날 금천구 문일고등학교 학생, 인술교사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지역회의의 예선대회에 참가했다. 경기지역회의(회장 박해진)는 24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집순),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7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경기도 대회'를 개최했다.



▲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하남시협의회 대회 (경기 하남시협의회)

▼ 제8회 고등학생 역사 통일골든벨 의왕시대회 (경기 의왕시협의회)



▼ 민주평통오산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경기 오산시협의회)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17일 '2017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하남시협의회 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우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의왕시대회'를 열었으며,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16일 '2017 민주평통오산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을 실시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0일 백현고교 재학생 65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역사통일골든벨 용인시대회'를 진행했다.



▲ 역사통일골든벨 용인시대회(경기 용인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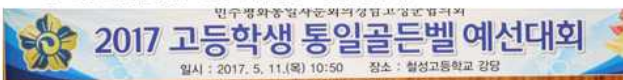
▲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강원대회(강원지역회의)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경남지역 본선대회(경남지역회의)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24일 '2017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강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 흥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 양양군협의회(회장 김현수) 등 시·군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30개 교의 학생 600여 명이 참가했다.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23일 삼천포체육관에서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경남지역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 함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 등 경상남도 시·군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39개 교 고등학생 734명과 자문위원,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경남 고성군협의회)



▲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경북지역 본선대회(경북지역회의)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김성진)는 11일 철성고등학교 강당에서 '2017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18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2017년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경북지역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 안동시협의회(협의회장 권순협),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 등 각 시·군 협의회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경북지역 23개 고등학교 학생 600여 명이 참가했다.

▼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전남 완도군협의회)



▲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전남대회(전남지역회의)



▲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전북 부안군협의회)

전남지역회의(부회장 장영인)는 25일 전남지역 27개 고등학교 학생 600여 명과 함께 '2017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전남대회'를 개최했다. 전남 원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18일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지역 필기 예선을 치렀고,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19일 부안여고 1, 2학년 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2017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부안군협의회 예선대회'를 열었다.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인기)는 15일 임실고등학교 강당에서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전북 임실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부산 남구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경북 칠곡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공감 강연회(인천 서구협의회)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는 25일 남천중학교 강당에서 '2017년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를 실시했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22일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24일 백석고등학교 강당에서 1학년 학생과 교사 4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공감 강연회'를 개최했고,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23일 청란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청란여고 1, 2학년 학생 등 420여 명 대상으로 '북한바로알기, 청소년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 청소년 통일공감 강연회(인천 서구협의회)



▲ 통일교육(강원 홍천군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실(제주 제주시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22일 홍천중학교 1학년 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검순)는 25일 송양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24일 제일중학교에서, 30일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2017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 통일교실(경기 화성시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이야기(경남 양산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충북 진천군협의회)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장안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통일교실'을 열었다.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28일 양주중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승서)는 2일 진천중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실시했다.



▲ 통일안보강연회(충북 영동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안보교육(충남 아산시협의회)



▲ 청소년 안보현장견학(충북 옥천군협의회)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24일 영동고등학교에서 '2017 통일안보강연회'를 개최해 '남북 청소년이 함께 꿈꾸는 통일' 강의를 진행했고, 같은 날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아산중학교 학생회 임원과 함께 강원도 철원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을 견학했다.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군상)는 11일 이원중학교 전교생과 함께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2017년 청소년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미래의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및 체험행사 (강원 횡성군협의회)



▲ 제4회 민주평통 전국 청소년 댄스퍼포먼스 대회 (전북 전주협의회)



▲ 청소년 평화통일 백일장(충남 서산시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5일에 횡성군에서 주최하는 '제95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해 '미래의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및 체험행사'를 실시했고, 전북 전주협의회(회장 나춘근)는 13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시민 1,500여 명과 함께 '제4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 청소년 댄스퍼포먼스 대회'를 열었으며,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13일 중앙호수공원에서 초·중고 학생 400여 명과 함께 '2017년 청소년 평화통일 백일장'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강원 홍천군협의회)



▲ 문화탐방(충북 옥천군협의회)



▼ 제3회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경기 안산시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6일 홍천읍 꽃피공원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를 개최했고,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군상)는 13일 안동하회마을과 영덕일원에서 문화탐방을 진행했으며,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20일 상록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시민, 탈북민과 함께 '제3회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을 열었다.



▲ 어깨동무하기 멘토링(경남 진주시협의회)



▼ 청년몰&야시장 탐방(전북 전주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농장(경기 광주시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20일 어깨동무하기 멘티 및 멘티 가족, 멘토자문위원들과 함께 이반성수목원을 다녀왔고, 같은 날 전북 전주협의회(회장 나춘균) 어깨동무하기 멘토자문위원들은 멘티들과 함께 남부시장을 찾아 청년몰과 야시장을 탐방했으며, 경기 광주시협의회(협의회장 박종선)는 17일 통일희망농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농장' 농작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 탈북아동돌봄센터 베드로의 집 방문(경기 과천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실향민이 함께하는 통일 안보현장 체험(대구지역회의)



▼ 신규전임 탈북민 생활용품 지원방문(전북 전주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7일 관내 한 탈북아동돌봄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 아동 후원 행사를 진행했고, 대구지역회의(부회장 박구하)는 1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이탈주민·실향민이 함께하는 통일 안보현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 전주협의회(회장 나춘균)는 12일 전주 완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탈북민 가정을 방문해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전달했으며, 경기 의정부협의회(회장 김점순)는 24일 '5월 먼저 온 통일을 위한 첫 돌 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 5월 먼저 온 통일을 위한 첫 돌 맞이 행사(경기 의정부협의회)

지역봉사활동



▲ 천양원보육원 아이돌봄자원봉사(대전 유성구협의회)



▲ 성지 요양원 방문(제주 제주협의회)



▲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부산 사상구협의회)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는 18일 관내 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원아 70여 명과 함께 이·미용자원봉사 및 삼겹살 만찬시간을 가졌으며, 제주 제주협의회(회장 임강자)는 25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10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를 실시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협의회장 신철범)는 18일부터 1박2일간 '더불어봉사단 독일마을 워크샵'에 참가금을 전달했다.



▲ 더불어봉사단 독일마을 워크샵(대구 수성구협의회)

해외활동



◀◀ 통일 골든벨 대회(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5월 20일 미첼팍커뮤니티센터에서 '2017 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학생 12명에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을 수여했다.

드폴대학 전문가 초청 북한 실상 강연회(미국 시카고협의회) ▶▶



유럽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는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쏘센하임에서 교민 150여 명과 함께 '2017 유럽지역회의 통일골든벨'을 열었다. 행사에는 백범을 총영사, 문경애 교육원장, 국방부 나승용 장군과 김이호 중령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중고등부 학생 2명은 6월 9일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지역회의 통일골든벨 결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2부로 진행된 '세계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에는 독일, 덴마크, 체코 등에서 8개 팀이 참가했으며, 우승팀인 독일 캄니츠(날개짓) 팀은 오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 통일골든벨 대회(미국 토론토협의회)



미국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는 7일 한남성당에서 '2017 통일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캐나다 한국학교 연합회(회장 신옥연), 캐나다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 한남 한국어 학교(교장 이경애)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내빈으로 참석한 알리 에사시 연방의원, 조성준 주의원, 이기석 한인회장, 이병승 한국어교육원장 등이 6명의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 청소년 통일축제(중국 상하이협회)

중국 상하이협의회(회장 이상철)는 13일 수저우 한국학교에서 900여 명의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2017 청소년 통일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1부에서는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를, 2부에서는 통일골든벨 행사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주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만여 고등학생들, 통일 지식 대결을 펼치다!

‘2017 민주평통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지역 본선

전국 고등학생들이 역사·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지난 5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각 지역회의가 주최한 ‘2017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본선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서울·경기·인천·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 등 국내 지역회의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북유럽·상하이 등 해외 지역회의의 본선을 통과한 100여 명의 학생들은 오는 7월 22일 열리는 ‘KBS 도전 통일골든벨’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서울지역회의 대회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경북지역회의의 통일골든벨 본선대회 현장을 다녀왔다.



▲서울지역회의 통일골든벨 본선 현장

미래는 ‘역사’라는 단단한 돌 위에 짓는 ‘아름다운 집’

초여름의 화창한 오후, KBS스포츠클드 아레나홀에는 서울 18개 구 26개 학교에서 온 700여 명의 학생들이 뿔뿔이 들어찼다. 2층 관중석으로 차례차례 올라가는 학생들 손에는 해진 문제집이 하나씩 들려 있다. 통일골든벨을 울리려는 노력의 흔적들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열공 모드에 돌입한 조민지(수도여고) 학생은 “첫 번째 조라 떨어지지만 옆에 앉은 친구보다 무조건 오래 남도록 분발하겠다”며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서울지역 각 협의회장들



▲손경식 서울 부의장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뒤, 손경식 서울 부의장과 각 협의회장들이 무대로 입장했다. 이번 대회에는 최복수 광진구협의회장, 이상호 성북구협의회장, 곽명애 도봉구협의회장, 한운섭 서대문구협의회장, 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 최성배 동작구협의회장, 이종춘 강동구협의회장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내빈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손경식 부의장은 응원사에서 “미래는 역사라는 단단한 돌 위에 짓는 아름다운 집과 같다”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서고 선후배의 막상막하 대결, 최후의 1인은 누구?

개회식 후에는 LED 비보잉 공연이 펼쳐졌다. 초록빛 레이저빔이 비트에 맞춰 감감한 울을 수놓자 학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경합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은 풀어진 듯 보였다. 이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고, 진행을 맡은 양성현 아나운서는 통일골든벨에 관한 룰을 간단히 소개했다. 경기는 700여 명의 학생들이 3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겨루고, 이중 210명(ABC조별 70명)의 학생이 본선퀴즈를 풀어 마지막에 남은 9명만이 결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조 예선에서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1차로 본선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의 이름을 묻는 문제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우르르 탈락해 대역석 문제 후 바로 패자부활전이 이어졌다. 패자부활전에서는 유엔군에 포함된 나라를 맞히는 문제를 끝으로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본선에 추가 진출하게 됐다.



▲ 본선 진출 모자와 배지를 받는 학생들



▲ 서울지역회의 통일골든벨 예선 OX퀴즈

3개 조의 예선전이 끝난 뒤에는 맛있는 간식과 함께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장기자랑에는 8개 팀이 참가했는데 노래와 랩을 선보인 남학생들 사이에서 흥일점으로 참가한 상암고등학교 김진희 학생이 발랄한 춤 실력을 뽐내 주목을 받았다. 듀엣으로 참가한 문일고 최민성, 김의찬 학생은 “작년 통일골든벨에도 참가했었는데 중간에 떨어져 아쉬웠다”며 “올해는 인기상이라도 얻어 결선에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

2부 본선에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한층 진지해졌다. 이에 양성현 아나운서가 “10년 뒤 여러 분이 되고 싶은 모습을 쓰라”는 문제를 제출하자, 학생들은 보드판에 아빠, 취직, 복학생, 멋진 변호사, 기자, 9급 공무원, 역사 선생님 등 멋지고 재미있는 꿈들을 적어 올렸다.



▲ 서울지역회의 통일골든벨 장기자랑 시간

16명의 학생만이 남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퀴즈에서는 보다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됐다. 특히 1910년대 일제 정책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한 문제에서는 7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떨어져, 9명의 학생들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가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마지막 최우수상을 두고는 선후배사이인 강서고 2학년 김민우 학생과 1학년 엄지섭 학생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두 학생은 다섯 문제를 잇달아 맞히면서 팽팽한 대결을 펼쳤으나, 여섯 번째 ‘장제스와 마요쩌똥’을 묻는 문제에서 김민우 학생이 최종 우승자가 됐다. 김민우 학생은 “역사학자가 꿈이라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최우수상을 두고 경합 중인 학생들



▲ 서울지역회의 통일골든벨 수상자들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 영상문제 출제

‘2017 경북지역 통일골든벨’ 대회는 포항 흥해실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15개 시·군 23개 학교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박경조 경북 울진군협의회장과 김정치 포항시협의회장, 류시홍 영천시협의회장, 정주현 영주시협의회장, 김유길 울릉군협의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를 전한 박경조 경북 울진군협의회장은 “우리 남북은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민족 시련을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통일골든벨이 대한민국을 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경조 경북 울진군협의회장



▲ 경북지역 각 협의회장과 내빈들



▲ 서울지역회의 통일골든벨 본선 현장

경북지역회의 예선전 역시 200명씩 ABC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조별 예선 문제에는 유명인의 영상문제가 주어졌는데, A조에서는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 선수가 등장했다. 이상화 선수는 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평창’과 발음이 비슷한 ‘평양’을 적어낸 학생들이 속출해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B조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를 맞히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다. 문제를 듣자마자 '꿈은 이루어진다'를 써낸 석적고등학교 정은솔 학생은 "막상 자리에 앉으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제발 공부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C조 영상문제로는 개그우먼 오나미 씨가 북한말에 관한 객관식 문제를 냈다. 상학시간과 하교시간, 기름밥과 볶은밥, 내뭍대와 배란다, 맞혼인과 연애결혼이 보기로 제시됐는데, 정답을 제출하고도 고개를 가웃거리는 학생들이 많자, 정답발표 후 신재경 아나운서가 "상학시간은 등교시간이나 수업시간을 뜻한다"고 설명 해주었다.

장기자랑 시간, 학생들의 다양한 끼 발산

예선전이 끝나고 이어진 장기자랑에는 총 4팀이 출전했다. 선산고등학교 강예강 학생은 방탄소년단의 '쩔어' 춤을, 형곡고등학교 김규민 학생은 가수 임창정 등 연예인 성대모사를, 영광여고 4인조 여학생들은 트로트 곡인 '사랑의 배터리'를 불렀는데, 이중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김규민 학생이 인기상을 수상했다.

180명의 학생들이 출전한 본선에는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됐다. 특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리는 퀴즈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와 한꺼번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탈락하기도 했다. 이때 아쉽게 탈락한 경주고등학교 조승호 학생은 "결선 진출에 낙오돼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통일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 같다"며 남은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 경북지역회의 통일골든벨 본선 경합

본격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퀴즈가 시작되자 어려운 주관식 문제들이 연이어 출제됐다. 이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1953년 휴전협정 후 유엔군 사령부가 그 해 상 경계선에 관한 문제에서 8명의 결선 진출자만이 남게 됐다. 그리고 최후의 2인 중에는 백암 박은식 선생이 쓴 역사서를 묻는 주관식 문제에서 포항중앙고 권혁래 학생이 정답을 써 경북지역 통일골든벨 본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혁래 학생과 친구들



▲ 경북지역회의 통일골든벨 수상자들



2017 역사·통일골든벨 지역회의별 수상자 명단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특별상
서울 지역 회의	김민우(강서고)	강재우(강서구) 이지연(미림여고) 최민준(양정고) 엄지섭(강서고)	이희수(문일고) 김해인 (성암국제무역고) 김시원(동양고) 김범진(강서고)	김도현(동양고)	*학교상 강서고등학교 *교사상 김탁유(강서고) 박재현(동양고)
경기 지역 회의	김주영(광주중앙고)	원건재(오산정보고) 김선빈(수원동원고) 강민(일산대진고) 박시연(수리고) 이주현(고양국제고)	길소연(주엽고) 소병은(세마고) 문민구(일산대진고) 전재훈(수원고) 이찬영(구리고)	배창주(양명고)	*학교상 전곡고 *교사상 김으뜸(일산대진고) 황명희(광주중앙고) 송기중(동원고)
인천 지역 회의	이동희(국제고)	김응완(국제고) 주가은(국제고) 이동엽(국제고)	유진(국제고) 오영선(국제고) 황주영(국제고)	배준호(광성고)	*학교상 국제고 *교사상 정구복(국제고)
대전 지역 회의	정지연(유성여고)	이제형(대신고) 유영연(충남여고) 임유정(충남여고)	안준호(대전중앙고) 김영재(대전대성고) 오태진(서일고)	정진열 (대전대성고)	*학교상 대전지족고 대전중앙고 *교사상 송재윤(충남여고)
강원 지역 회의	신우열 (황지고등학교)	윤준봉(강릉고) 최규혁(횡성고) 주영우(강릉고) 정준교(북평고)	안주현(강원외고) 이영욱(북평고) 이준수(황지고) 박민서(북평고)	박지민(황지고)	*학교상 북평고 *교사상 엄선자(황지고) 황유진(북평고)
경남 지역 회의	강경진 (김해삼문고)	고유미(남해제일고) 최근호(마산제일고) 강현우(창원사파고) 이민석(사천고)	최지혁(창녕목야고) 정연호(사천고) 이찬희(삼천포고) 박태진(창녕목야고)	김창현(진해고)	*학교상 창녕목야고 *교사상 조용희(김해삼문고) 배미라(사천고)
경북 지역 회의	권혁래 (포항중앙고)	송채원(영천선화여 고) 김지훈(경주고) 김진희(영천성남여 고) 조민규(영천영동고)	박수완(구미고) 김주환(포항중앙고) 김정훈(구미고) 한승민(경주문화고)	김규민 (구미형곡고)	*학교상 영천성남고 *교사상 김승형(포항중앙고) 김태화(구미고)

전 국 지 역 회 의	박유빈 (목포덕인고)	김준희(목포덕인고) 김민우(목포덕인고) 배상철(목포홍일고) 김동민(목포덕인고)	박성화(목포혜인여 고) 이승연(목포창평고) 김민재(영광해룡고) 오준민(광양제철고)	박이건(강진고)	*학교상 목포덕인고 *교사상 심정선(목포덕인고) 강급당(목포홍일고)
----------------------------	----------------	--	---	----------	---

※ 각 지역 통일골든벨 본선은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본선 수상자들은 7월 23~24일 펼쳐지는 'KBS 도전 통일골든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00명 시민이 통일의 여망을 나누다”

부산지역회의 ‘2017 평화통일콘서트’

5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7 평화통일콘서트’가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가 부산 시민, 탈북민,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을 화두로 소통하고자 마련한 음악회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관객인 1,400명 시민과 함께한 뜨거운 콘서트 현장을 소개한다.



평화통일콘서트가 한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씨앗 되길

많은 직장인들이 집으로 향하는 퇴근 시간, 부산문화회관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매년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는 부산지역회의의 ‘평화통일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무대는 부산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BNO) 홍성택 지휘자와 최정원 뮤지컬배우, 최철웅 탈북민 피아니스트, 이철성 테너, 4인조 성악앙상블 벨트라움이 출연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 이영숙 부산 부의장과 협의회장들

내빈으로는 이영숙 부산 부의장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백중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를 준비한 이영숙 부의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평화통일콘서트’는 한국 공동어로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로 시민들과 통일의 여망을 나누는 자리”라며 “올해는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 더욱 설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깊어가는 봄 밤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평화와 자유의 소중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백종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오늘 콘서트가 통일을 향한 꿈과 희망, 분단 회복의 씨앗이 되길 소원한다”는 축사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평화통일의 열망을 담은 하모니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철웅 피아니스트와 부산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펼쳐진 '감성충만' 통일하모니

콘서트 진행은 첫 회부터 함께해온 정희정 KNN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날 공연은 1, 2부 100분에 걸쳐 총 14곡이 연주됐는데, 무대 중앙에 마련된 대형 LED 화면에는 곡의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영상들이 상영됐다. 정희정 아나운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콘서트가 하루빨리 ‘통일을 축하하는 음악회’로 바뀌길 기대한다”며 콘서트 문을 활짝 열었다.

1부 첫 곡은 ‘핀란드야(Symphonic Poem ‘Finlandia’ Op.26)’였다. 홍성택 지휘자와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BNO)가 준비한 이 작품은 1899년 러시아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던 핀란드를 위해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작곡한 곡이다. 이어 1부에서는 1976년 북한 작곡가 최성원이 편곡한 ‘아리랑 환상곡’을, 2부에서는 김철웅 피아니스트와 함께 1972년 북한에서 창작된 통일 애창가요 ‘조선은 하나다’를 연주해 1,400명의 부산시민과 탈북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 최정원 뮤지컬배우와 전어진 학생



▲ 이철성 테너

이날 최고 인기를 누린 최정원 뮤지컬배우는 1부에서 ‘꽃밭에서’와 ‘Fly me to the moon’을 선보였다. 최정원 씨는 “사실 저희 아버지도 한국전쟁 때 피난오신 실향민”이라며 “살아계시진 않지만 할아버지가 사셨던 고향을 그리며 1부 곡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전어진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뮤지컬 ‘맘미아’ 곡인 ‘Dancing queen’과 ‘I have a Dream’을 들려주었다.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출신의 이철성 테너는 한국전쟁 12주년 기념곡인 ‘그리운 금강산’과 스페인 그라나다 지역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는 ‘그라나다’를 불러 갈 수 없는 북녘 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남성 4인조 성악양상을 벨트라움은 1부에서 ‘아름다운 나라’와 ‘붉은 노을’, 2부에서 ‘HERO’와 ‘불러라 통일의 바람’을 불러 아름답고 희망찬 ‘통일한국’의 모습을 담아 선사했다.

모든 공연이 마무리되고, 전 출연진과 관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17 평화통일콘서트’의 막을 내렸다.



2017 평화통일콘서트 미니인터뷰



배광환·황원희 부부

훌륭한 예술가 분들이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열정적으로 보여주셔서 새삼 통일의 절실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무대를 복에 계신 분들과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앞으로도 많은 문화공연을 통해 2030을 비롯한 다음세대들이 '통일염원'을 강하게 가졌으면 합니다.



엄정아 자문위원

음악으로 통일을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참여인데, 해마다 우리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자리 같습니다. 하루빨리 통일된 한반도에서 누구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을 위한 추진과제’ 토론회 개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30여 명 참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투발 수단의 고도화로 안보 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북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청년들이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30여 명의 예비 석학, 통일·안보 현안에 대해 토론

민주평등은 지난 6월 2일(금)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을 위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를 열었다. 통일·북한 관련 예비 전문가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국방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 3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북 핵문제와 남북 관계 등 통일·안보 현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노현중(서울대 박사과정) 학생이 ‘21세기 바람직한 남북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 발제 중이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처음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회째 행사를 열게 됐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대북정책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접목하기 좋은 시기에 열린 세미나이기 때문에 정성적 의견을 개진하고 통일 의지를 적극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홍규덕 교수는 “세미나 참가자들은 머지않아 미래 남북통일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탄없이 발제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21세기 바람직한 남북 공동체상 및 스포츠 교류 관련 논의

토론회 1부는 새로운 남북공동체 정립과 스포츠 교류를 주제로, 2부는 북핵을 비롯한 안보 관련 이슈로 나눠 총 5명의 학생들이 발제를 한 뒤 의견을 나눴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21세기 바람직한 남북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노현중 학생(서울대 박사과정)이 발제를 했다. 노현중 학생은 통일이란 남북한 간 현실적인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남북한 모두 사회 변화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통일의 비전과 전망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민족’의 경우 ‘종족’과 ‘시민성’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있는데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종족’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공동체’ 개념도 지나치게 목가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맞게, 평화적,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은 학생(이화여대 석사과정)은 ‘하나된 열정’에서 다시 시작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안정은 학생은 먼저 지금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스포츠 교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 보여준 뒤, 그동안은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는 이벤트적 성격이 강했고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는 탈정치화를 통해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펼쳐나가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행정이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며,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평창올림픽을 통해 다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발제에 대해 학생들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페이스 북’이라는 15억 공동체가 민족성과 비슷한 동질감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민족공동체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서는 교류에 따른 자원 마련, 국민들의 여론, 선수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안정은 학생

2부 북핵 문제와 안보,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논의

2부에서는 먼저 장석준 학생(고려대 석사과정)이 ‘북한의 핵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장석준 학생은 김정은 정권이 핵 무기 및 투발 수단을 계속 고도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외교 역량을 적극 발휘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노선 구축을 위한 전략적 교류, 협력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부 발제 중인 장석준(고려대 석사과정), 김진원(국방대 석사과정), 최지연(동국대 박사과정) 학생

‘과거 정부와의 비교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격과 과제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원 학생(국방대 석사과정)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 설명한 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격과 과제를 분석, 제안했다. 김지원 학생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북미 관계에 동조해 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하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북 관계 경색을 비롯해 국민들의 대북 인식론, 국제사회 제재 국면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인식론과 방법론, 우선순위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학생(동국대 박사과정)은 ‘새 정부 새로운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소고’에서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방향은 북한이 평화통일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이른바 ‘코리아 리딩’이 필요하며, 남북 경협을 통해 통일 경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에게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면서 대화와 제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주도의 창의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 위기에 대한 발제들이 잇달아 진행되자 플로어에서는 서로 코멘트를 하려는 학생들로 더욱 활기가 넘쳤다. 이 중에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자발적 비핵화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구체적인 교류 협력의 이득이 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편,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의 발제와 토론을 지켜본 권태오 사무처장은 “작년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통일 정책과 전략이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이 상생 공영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통일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 소감

청년다운 신선한 제안 & 생각 공유하는 좋은 기회



홍규덕 교수(사회,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젊은 세대답게 시민의 권리나 다민족에 관한 새로운 요소들을 21세기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신선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자는 이야기에 마음이 호뭇했구요. 통일이란 이슈를 고답적이라고 생각지 말고 새 시대에 맞게 많은 연구를 수행해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임지연(서울대 석사과정)

학문을 하다 보면 ‘틀’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북한을 주제로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다른 학우들은 어떤 레토릭 안에서 고민하는지 느끼고, 듣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이다 보니 전쟁을 겪은 세대와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만의 담론을 갖춰가면서 통일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호국보훈의 달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민주항쟁, 6월 25일 한국전쟁
6월은 나라사랑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달!

'호국보훈의 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현충원, 국립묘지 등을 다녀왔거나
태극기 게양 등을 실천한 '호국보훈 인증샷' 응모
접수기간 2017년 6월 15일(목)~7월 4일(화)
상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3명)

응모하기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따라잡기!

바야흐로 여행하기 좋은 계절~

e-행복한 통일의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코너에서

소개된 **여행지 기념사진** 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 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코너에 소개된
여행지 인증 사진을 응모

접수기간

2017년 6월 15일(목)~7월 4일(화)

상 품

모바일 커피쿠폰 2만원권 (3명)

